

문서작성 워크숍 후기(2008 가을)

요약

2008년 11월 공주에서 열렸던 L^AT_EX 문서작성 워크숍 후기입니다. 어제 회식을 마치고 나올 때 도은이아빠님께서 지난 번 후기가 성의가 없다고 하셔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ConT_EXt으로 좀 더 신경써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때도 나름 성의있게 썼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제 글솜씨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π.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후기를 씁니다.

3년째 참석하고 있는 L^AT_EX 문서작성 워크숍. 매년 그렇듯이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 특히 L^AT_EX으로 문서작성할 때 제일 귀찮고 어려웠던 폰트 설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XeLaTeX강의에 많은 기대를 했다.

오후 첫번째 강의를 맡으신 샘처럼님은 KCMenu에 대한 이야기와, LaTeX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 ‘PDF제외한 모든 파일 삭제’라는 기능을 이 때 처음 알게 됐다. 며칠 전 KTUG게시판에 올라와서 이 기능을 찾아봤는데 못찾았다. ‘최종컴파일’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닐 거라며 대충 훑어봐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ConT_EXt으로 컴파일한 파일들에 대해서는 ‘.log’파일 외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latex으로 컴파일되어 만들어진 부수파일들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것 같다.

이용신님은 Beamer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Microsoft의 파워포인트와 비교하여 소개해 주셨다. 듀얼모니터 기능이 흥미로웠는데, 아쉽게도 아직 Windows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신다. 그리고 예제로 만드신 샘플문서가 마음에 든다. 소스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나중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 내용도 좋았지만, 발표를 재미있게 하셔서 즐거웠다.

조명철 교수님은 Beamer를 LyX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예제로 보여 주신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그림이 많아 그림보는 데 정신이 많이 팔렸다(이래서 슬라이드 만들 때 그림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가 보다). 초보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공감됐다.

마지막은 도은이아빠님의 X_ƎL_AT_EX에 대한 강의였다. T_EX에서 글꼴을 처리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 X_ƎL_AT_EX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언뜻언뜻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다. 전에는 글꼴설정부분이 어렵고 복잡해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았는데, X_gTeX을 알게 되어서 어지간한 한글 트루타입 폰트는 다 쓸 수 있게 되었다. 일부 한글 트루타입 폰트 중에는 X_gTeX으로도 안되는 게 있었는데, 어제 알려주신 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다. 사실 도은이아빠님의 X_gTeX강의를 많이 기다린 이유는, 요즘 공부하는 ConTeXt에서 한글폰트 때문에 골치를 썩고있기 때문이다.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지만 실패하고 있다. 그냥 게시판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워크숍 중 쉬는 시간에 작은 나무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L^AT_EX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Plain TeX을 쓰신다는 작은 나무님. 나는 허탈할 뿐이었다. 그러나 휴가까지 내고 오신 열정을 보면, 역시 그만한 실력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낀다.

매번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해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신 조인성 교수님과 조교님, 먼길 오셔서 진행을 해주신 김도현 교수님, 지각하느라 강의는 듣지는 못했지만, KC2008의 설치과 L^AT_EX기초강의를 해주신 이기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주호선생님을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샘처럼님과 저를 유성까지 태워다 주신 광주에서 오신 분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유성IC는 그 삼거리가 아니라, 그 다음 삼거리였는데 길을 잘못 안내해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 불구하고 잠시 변명을 늘어놓자면, 도로가 생긴 꼴이 똑같은데다, 깜깜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버스타러 주욱 걷다가 유성IC 삼거리를 발견하고서는 아차싶었는데, 연락할 길이 없어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ㅍ.ㅍ